

복음전파(傳播)의 성격과 뒤따르는 표적

- 마가복음 16:15-18에 대한 풀이 -

Dr. Wes Bredenhof *

이윤호 옮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기는 에너지 가득한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이 맡은 일에 힘이 미치는 데까지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망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백 가지의 문화, 수천 개의 도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언어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역시 이렇게 중대한 세계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 Cornelis Kleyn목사님과

Henry Versteeg목사님 두 분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는 Edwer Dethan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들은 아시아에 당분간 머물고 계시는 Frank Dong목사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밴쿠버 지역의 중국인 이민자들과 하듯이 아시아 대륙의 사람들과도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Jim Witteveen목사님은 북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프린스 조지에서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전도단체가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Paul Aasman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브라질에도

* Dr. Wes Bredenhof는 캐나다 Hamilton에 있는 Providence Canadian Reformed Church의 목사이다. 이 글은 그가 'Christ commissions his apostles with their missionary calling'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설교이다. 그는 선교지평에 이 설교를 번역해서 신도록 허락해주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 16:15-18)

있습니다. Abram De Graaf목사님이 브라질의 마세이오에 여러 해 동안 머물고 계십니다. Julius Van Spronsen목사님과 Ken Wieske목사님은 레시페를 비롯한 브라질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교단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국내외 선교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이 멕시코와 남 매니토바 주(州) 같은 지역에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계획이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선교사의 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선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선교는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사랑으로 하는 순종의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선교에 대해서라면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16:15-18, 즉 그리스도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도들과 그들이 이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선교의 소명을 어떻게 위탁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군을 명령하다

우리가 살펴 볼 본문의 바로 앞 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완고해서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자들을 믿는데 더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인자롭게 붙드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갈릴리 어떤 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때인 14절과 15절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어디에선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열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그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군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매우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다루는 각각의 기사는 저마다 상이한 곳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위임령에 대한 상이한 본문들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의 빈곳을 채워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그들의 선교소명에 대해 마음에 품고 계셨던 바를 우리로 하여금 선명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위임령 전반(全般)에 걸쳐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는 어느 곳에 힘을 주어 말하고 있을까요?

전파(傳播)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Go into the world/온 천하에 다니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떠나서 어디론가 가는 것, 이왕이면 비행기로 한참 가야하는 먼 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식의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헬라이어 문법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5 절에는 하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파하라.”입니다. ‘가는 것’은 전파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행동이지 명령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도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단지 “말하라.”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적 권위를 가진 메시지와 관련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공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것은 권력자로부터 임명을 받은 어떤 전령(傳令)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대의 전령은 왕이 말했던 것과 똑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 내용 뒤에는 전령을 보낸 높은 권력자가 서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령이라 함은 그 직책을

위해 임명을 받아 보냄을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기 위해 그로부터 임명을 받아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해야 할 그의 전령들이었습니다. 그 전령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지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열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공적이고 권위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특별한 직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전파한다

(preach).”는 표현은 그 직무를 위해 특별히 임명받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 구별이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상명령(至上命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 각각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 직무를 부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우선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에베소서 2:20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명령(至上命令)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 직무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직무를 받지 않은 교회의 개개인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역시 복음이 확장되는데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벗어나야 하지만 간단히 대답하자면, 그들에게도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 하는 선지자로,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부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본문에서 마가의 강조점이 사도들과 교회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수동적인 태도로 뒷전에 물러나 있거나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무관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교회의 공적인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해야 합니다. 그들을 격려할 수 있고 또한 그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마지막으로 격려의 안부를 전한 것이 언제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외롭거나 지칠 수 있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므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합니다. 최전방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데 참여하는 일입니다.

전파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가

15절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 사도들이 위탁받은 메시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16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믿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구원으로 이끄는 메시지입니다.

16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대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는지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16절의 후반부,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곧 ‘정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가 있을 터입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에서 생생하게 겪게 될 진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진노로부터 벗어날 구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자신을 오직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나간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의(義)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의해서 널리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 사람이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은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언약에 대한 표(標)와 인(印)입니다. 16절 말씀은 마치 세례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구원 공식의 구성요소인 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두 부분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1)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2)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가 언급된 것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례는 중요합니다. 우선 그것은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가시(可視)적으로 교회의 교제 속으로 이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한 범죄자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파하도록 요구 받았고 오늘의 교회가 선포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까요? 15절의 뒷부분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라는 매우 포괄적인 대상입니다. 사도들이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민’이라 했을 때 그것은 전 인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선교란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나 행해지는 사역이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교회의 소명이 가까운 이웃들과는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예전에 그랬는지조차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역시 파푸아 뉴기니나 인도네시아, 혹은 브라질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문제를 다문화적 환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 두 개의 한정된 문화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토론토(Toronto)에 사는 거의 2백만 인구가 가정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밴쿠버(Vancouver)에서도 거의 750,000명의 인구가 가정에서 영어나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펀자브어(Punjabi)나 광둥어(cantonese)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수치는 나라 전체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이곳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나라 안에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대미문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교회의 선교를 생각한다면 외국인든 국내든 모든 곳이 복음을 전파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에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칠 수 있는 모든 곳, 즉 만민에게로 그 메시지를 신실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까지, 곧 이어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땅 끝’으로까지 갔습니다.

표적(表迹)이 뒤따르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할 때 놀라운 표적(表迹)들이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놀라운 표적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 방언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배우지도 익히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언어를 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뱀을 집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독이 든 뱀이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독을 마시고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일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 중 거의 전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8:7에서 우리는, 빌립에 의해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앓은뱅이들이 나왔다는 기사를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날에 방언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또한, 바울과 그를 물었던 독사에

대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멜리테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틀림없이 죽을 줄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전혀 상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보블리오의 집에서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던 그의 아버지를 기도와 안수로 낫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거의 전부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독을 마시고 살아남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 혹은 유스도 바사바라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기 위해 천거된 두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거기서 맛디아가 뽑혔지만 유스도 바사바 역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한 70명 중에 그가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파피아스는 유스도 바사바가 독을 마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표적은 사도시대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지니는 목적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서 나타났던 표적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表迹)은 무엇입니까?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적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의미하고 지칭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로 말했다는 것은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급속히 그의 교회를 모으고 일치시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의 전복(顛覆)을 가리킵

니다. 그렇지만 방언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지금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듣는 것은 임박한 심판의 표적(表迹)입니다. 심판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 AD70년에 내려왔습니다. 방언은 구속사 가운데 바로 그 시점에서 아주 뚜렷한 목적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뱀을 잡는 것은 자연의 영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칭합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 때 뱀이 했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뱀은 바로 파괴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뱀은 보편적인 정의(正義)가 드러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뱀에 대한, 즉 죄와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독사가 그리스도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독(毒) 역시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독은 틀림없이 죽음을 가져오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한 병든 자를 낫게 하셔서 사람의 몸에 대한 권능과 저주의 전복(顛

覆)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삶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치유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여겨질 것이 아닙니다. 놀라움과 경탄, 혹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치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지칭하는 표적(表迹)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왜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런 표적들을 행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도시대라는 특별한 성격과 관련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표적들은 어떤 특정 시기, 즉 교회가 작고 복음이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성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에 특별한 목적을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도시대에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신약성경이 여전히 기록되고 있던 시절에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했습니다. 사도시대 이 후에는 이런 표적들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파된 복음을 확증할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된 내용이 참되고 확실한 것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기적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부르는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외에 다른 어떤 표적들을 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소명에 표적이 수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과 동행해서 청중의 마음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가져감으로써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존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하는 대사(大使)이자 전령(傳令)이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그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을 선두에 두거나, 혹은 중심에 두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傳令)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인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②

교회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傳令)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